

리우자쿤(劉家琨) 건축의 서사성(敘事性) 발현에 대한 연구 - 녹야원석각박물관(鹿野苑石刻博物館)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Narrative in Liu Jiakun's Architecture - Focus on the Case of Luyeyuan Stone Carving Museum -

진 사 굉* 조 항 만**
Chen, SiHong Zo, HangMan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economic globalization and the information age, architecture has gradually become a product of politics, capital, and culture and it has lost its architectural significance. In modern architecture, narratology has gradually become a part of it that can be used to improve the expressing method of architectural space. With the help of narratology, we attempt to regain the spiritual meaning that the building should have. This article analyzes the narrative design method at Luyeyuan Stone Carving Museum through a discussion of Chinese architect Liu Jiakun who has a literati background. Through observing the narrative content and getting to know how the narrative is expressed in the building, we may improve the design theory of the existing building and complete the revival of the meaning of the architectural spirit.

키워드 : 리우자쿤, 중국 현대 건축, 서사성, 발현, 녹야원석각박물관
Keywords : Liu Jiakun, Chinese Modern Architecture, Narrative, Expression, Luyeyuan Stone Carving Museum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국 현대건축에서 리우자쿤(劉家琨)¹⁾은 왕슈(王澐), 장용호(張永和)과 함께 중국의 3대 건축가로 잘 알려져 있다(Jeon, John, & Choon, 2019). 리우자쿤은 다른 건축가들과 달리 쓰촨성(四川省) 문학원에 채용될 정도로 문학창작에 열중한 인물이었다. 1982년부터 건축가로 활동을 시작했지만 1993년까지 10년간은 건축 활동보다 문학 창작에 더 열정적이었다. 1993년에 한 건축전²⁾에 초대

계기로 개인 건축사무소를 창립하면서 건축 활동에 다시 열중하였다.

리우자쿤의 대표적 건축 작품들에는 허뒤링작업실(何多苓工作室), 녹야원석각박물관, 수정방(水井坊)박물관, 웨스트 빌리지(西村大院) 등이 있으며 대부분 쓰촨성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위 건축물들을 연구대상으로 한 논문들이 이미 다수 출판되었다. 선행 연구들은 주로 향토(響土)건축 측면에서의 연구이다. 지역 건축가로 활동하여 인지도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도 리우자쿤의 건축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있다. 『리우자쿤의 건축에서 본토(本土)성의 발현에 대한 연구』(Jin, 2017), 『리우지아쿤』(Jeon, John, & Choon, 2019) 등이 이러한 것으로 본토성이나 지역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이다.

이런 연구주제와 함께 그의 건축을 다룬 논문들에서 ‘서사성’이 높은 빈도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 ‘서사성’을 통해 건축가이기 이전에 소설가였던 리우자쿤의 건축에서 개인사적 배경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리우자쿤 건축의 서사성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아 후속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리우자쿤의 건축 작품 중에서 녹야원석각박물관을 사례로 분석하여 그의 건축에서 나타난 ‘서사성의 발현’을 살펴보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를

돕는데 영향을 주었고 지금까지 건축 활동을 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건축학 석사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zohangman@snu.ac.kr)

1) 리우자쿤(劉家琨)은 1956년에 중국 쓰촨성(四川省) 청두(成都)에서 출신 건축가로 활동하고 있다. 리우자쿤의 작품은 제 15회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 등 전시회에 소개되었다. 2018년에는 영국 서펜타인 파빌리온의 첫 중국 건축가로서 프로젝트를 담당하였다. 건축가로 활동하기 전에는 소설가로 활동하였으며 『고지(高地)』, 『영웅(英雄)』, 『회색 고양이와 왜나무를 심은 정원(灰色猫和有槐树的庭院)』, 『명월구상(明月構想)』 등 소설 문학 작품을 남겼다.
2) 1993년에 리우자쿤의 대학교 친구 탕화(湯樺)가 상하이에서 개인 건축전을 열었고, 리우자쿤은 건축가가 아니라 친구로서 초대를 받았다. 이 건축전은 리우자쿤이 개인 건축사무소를 창

통해 리우자쿤이 서사성을 현대건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하는지를 밝히고, 그의 건축적 서사성이 중국 현대건축에서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우선 문학에서 시작된 서사학³⁾이 건축에 적용되는 과정을 밝히고 서사적 건축의 배경을 고찰한다. 다음으로 리우자쿤의 건축관에 의해 건축에서 드러난 서사성의 특징을 총체적으로 다루고, 마지막으로 녹야원석각박물관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리우자쿤 건축의 서사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연구의 방법으로 먼저 건축에서 서사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론적인 고찰을 진행한다. 국내외 서사성에 대한 문헌조사를 통해 서사성에 대한 정의를 이끌어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건축가 리우자쿤의 건축 작품의 서사성을 사례들을 통해 분석한다. 그 분석결과와 서사성에 대한 이론고찰의 결과를 한 번 더 비교 검토한다.

첫 번째 이론적 고찰을 통해 문학 작품에서 시작한 서사학을 건축에서 활용된 계기와 발전의 맥락을 파악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리우자쿤 작품의 건축적 서사 특성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론적 결과와 실제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서사성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이해와 결론을 도출한다.

요약하면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한 서사성의 정의와 현상담사를 통해 발견한 내용을 결합하여 리우자쿤의 건축 작품에서 서사성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또 그 표현 방법은 무엇인지를 살핀다.

Table 1. Liu Jiakun's Architecture Case Study Scope

Time		Architecture Name	Chinese Name
Before the Foundation	Early	1994 Luo Zhongli Studio	羅中立工作室
		1995 He Duoling Studio	何多苓工作室
After the Foundation	Transition	2001 Luyeyuan Stone Carving Museum	鹿野苑石刻博物館
	Latterly	2007 Shanghai Xiang-dong Buddha Statue Museum	上海相東佛像藝術館
		2008 Hu Huishan Memorial Hall	胡慧珊紀念館
		2008 Shuijingfang Museum	水井坊博物館
		2010 West Village	西村大院

연구의 대상은 Table 1과 같다. 첫 번째는 리우자쿤이 1993년부터 건축가로서 활동을 시작하여 1999년 개인 건축사무소를 창립할 때까지의 초창기 작품들이다. 당시는 소설가로서의 개인사적 영향이 건축 작품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기로 강한 서사성이 그 특징이다. 이 시기에 속한 허뒤링작업실(何多苓工作室)은 건축적 서사구조가 뚜렷하여 본 연구의 대상이다. 두 번째는 1999년 개인 건축사무소 창립한 후에 설계한 건축 작품들이다. 건축사무소 창립 초기의 건축에서 여전히 소설가로서의 영향이 건축 구조에 많이 나타났지만, 서사 내용의 표현에 대한 연구가 더 많아 보인다. 이 시기는 그의 전환 시기라고 하며 이 시기에 속한 녹야원석각박물관(鹿野苑石刻博物館)이 연구대상에 해당한다. 건축사무소를 창립한 후기에 리우자쿤은 서사 구조보다 건축에서 서사 내용 표현에 대해 더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후후이산기념관(胡慧珊紀念館)과 웨스트 빌리지(西村大院) 등이 연구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녹야원석각박물관은 리우자쿤의 관심이 건축적 서사구조에서 서사내용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속하는 작품으로 건축의 서사적 구조와 서사적 내용의 표현에 의한 특성이 모두 강렬하게 나타난 작품이다. 이것을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2. 서사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2.1 문학에서의 서사학

서사학의 시작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詩學)』, 플라톤의 『정체(政體)』 등의 문학 작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러시아 형식주의에 속한 구조주의의 영향을 받아 1970년대에 프랑스 문학이론학자 제라르 주네트가 서사학의 대성을 이루었다(Wang, 2013).

문학 작품에서 시작된 서사학은 이야기의 기술과 구조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 분야이다. 문학 작품에서 필수적 요소는 인물, 사건, 장소이다. 이 요소들은 작가가 이야기하는 기술과 구조를 통해 완성된 이야기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만들어진 이야기는 문자로 된 매개체를 통해 독자에게 전달된다. 매개체는 문학 작품에서 문자에 한하지만 다른 장르에서 드로잉, 영화, 연극, 조각, 무용과 건축 등 다양한 형태로도 존재가 가능하다.

2.2 건축과 서사의 관계

건축과 서사의 관계는 고대 그리스 아크로폴리스가 건설될 때부터 존재하였다(Lu, 2012). 중국 고대 건축 중에서 전통적 원림건축도 고시(古詩), 고문(古文) 등 문학작품을 차용하여 그 작품들의 의사표현, 공간조직, 전체분위기를 구성에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중국 원림건축을 대표하는 줄정원(拙政園)의 함청정(涵青亭)을 구성할 때 연못과 그 위에 떠 있는 정자, 멀리 있는 잔디밭으로 표현된 “지함청초색(池涵靑草色)⁴⁾”이라는 시의 내용을 구성에 활용하였다. 서사를 이용한 고대의 건축 사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연구는 서사가 건축 설계방법

3) 서사학(영어:Narratology)은 서사, 서사 구조,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사람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론과 연구이다.

4) 당(唐)나라 시인 저광희(儲光羲) 『동장시어정화경조소병조화세만남원(同張侍御鼎和京兆蕭兵曹華歲晚南園)』에 “지함청초색(池涵靑草色), 산대백운음(山帶白雲陰)” 중에서 유래되었다.

으로 등장하는 최초의 시기를 1980년대로 잡고 있다.

당시에 서사학은 언어학자, 문학자, 철학자 등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단일한 분야를 넘어 사회서사학, 인지서사학 등과 같이 다른 학문과도 융합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건축 분야에서도 철학, 기호학, 심리학, 문학 등 타 분야가 인용되기 시작하였으며 건축학과 서사학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시작되었다. 영국 AA스쿨(AA School of Architecture)의 베르나르 추미(Bernard Tschumi)와 나이젤 코츠(Nigel Coates)는 건축에서 문학, 영화, 연극 등의 타 분야와 함께 서사에 대한 연구와 실천을 하고자 했다. 코츠는 학생들과 함께 NATO(Narrative Architecture Today)라는 연구팀을 구성하였고 이 연구팀은 컨텍스추얼리즘⁵⁾을 중심으로 한 도시 공간의 사상과 기법을 사용하여 현실과 이상이 혼합된 도시공간을 제시함으로써 건축적 서사를 계속 연구해 나갔다.

20 세기 말에 서사의 개념은 “기호/ 요소” 중심으로 부터 점차 “의미/ 관계” 중심으로 바뀌었다(Lu, 2012). 이러한 변화로 인해 서사학은 다른 학문 분야와 결합이 용이해져 더 많은 연구와 활용이 가능해졌다.

2.3 서사적 건축

(1) 서사적 설계와 서사적 건축의 개념

건축의 서사적 설계란 건축의 사용 기능 측면에서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건축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건축에 표현한 설계 방식을 의미한다. 건축은 단순히 사용하는 목적이 아니라 서사적 건축으로 방문자에게 깊은 의미를 전달하고, 또한 건축가는 방문자에게 건축 공간에 대한 심미적 감상을 제시함과 동시에 의미의 해석을 유도 한다.

서양의 건축 이론에서 건축가는 건축의 재료, 구조, 공간, 시공법 등을 통해 본인의 사고방식을 구현하고 목적을 달성한다. 이렇게 건축은 건축가의 언어가 되고, 서사적 건축설계는 건축가가 건축언어로 의미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Xiang, 2005). 이러한 수단으로 구축된 건축을 서사적 건축이라고 하며 이 건축에서는 서사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서사적 건축의 기본적 내용

서사적 건축의 기본적 내용은 서사의 내용과 서사의 방법으로 두 부분을 나눌 수 있다. 무엇을 서사하느냐는 서사의 내용에 해당하고, 어떻게 서사하느냐는 서사의 방법에 해당한다.

서사의 내용은 건축가가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사상이나 작품이 표현해야 할 주제이다. 서사의 방법은 표현의 언어와 표현 과정의 구조로 두 가지 측면을 다룰 수 있다. 다시 정리하자면, 서사의 내용은 서사적 주제로, 표현의 언어는 서사적 내용의 표현으로, 표현 과정의 구

조는 서사적 구조로 정리할 수 있다(Figure 1). 그리고 서사 작품의 의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필수적 요소는 서술자, 매개체, 수용자로, 서사적 건축에서는 건축가(서술자)의 의도가 건축(매개체)을 통해 방문자(수용자)에게 전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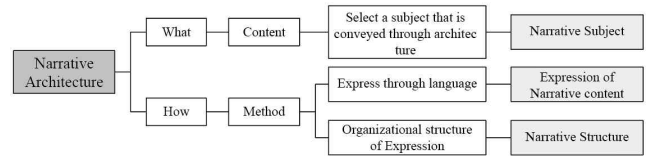


Figure 1. The Content of Narrative Architecture

(3) 서사적 건축의 특징

서사적 건축의 특징은 네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서사적 건축의 구성요소는 언어 의미전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서사의 시점으로, 건축은 방문자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장치와 매개체이다. 서사는 의미를 전달하는 기본적 방식이고, 그의 도구는 언어이다. 여기서 말하는 언어는 의미 전달이 가능한 모든 매개체를 의미한다. 건축가가 건축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의미를 전달하려면 언어의 선택과 그 언어의 의미전달 능력을 연구해야 한다. 건축가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상화시켜 건축으로 표현한다. 반면에 방문자는 건축의 해석을 통해 다시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한다. 이렇게 건축가의 설계와 방문자의 체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두 번의 언어 번역이 일어나는 것도 서사적 건축과 언어학, 기호학의 밀접한 관계를 실증한다.

서사적 건축의 구성요소나 공간질서 측면에는 구조가 뚜렷한 조직 방식을 가지고 있다. 구조주의의 시점으로, 세상의 모든 것은 관계를 통해 구성된다. 구성에 필요한 사물은 이러한 관계를 구성해준 요소일 뿐이다(Song, & Zou, 2000). 마찬가지로 서사적 건축은 구조주의의 영향을 받아 관계를 중요시하며, 건축 구성 요소들과의 관계를 통해 의미를 얻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관계 속에 반드시 일정한 질서와 조직 방식이 있어야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 서사적 설계는 건축의 형태, 공간, 여러 요소들의 의미를 연구하는 한편, 이들 사이의 조직 관계에 대해 중요시해야 한다.

서사적 건축은 방문자의 공간체험을 중심으로 공간이 배치된다. 서사적 작품은 사람의 참여와 분리할 수 없으므로 서술자의 서사가 필요하고, 또한 수용자의 경험이 필요하다. 서사적 건축에서 건축가의 의사전달이 중요하지만, 방문자는 수용자로서 공간에 대한 체험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건축가는 설계 과정에서 의미전달을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동시에 방문자에게 어떠한 공간 체험을 제공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서사적 건축은 강한 시간성을 가지고 있다. 서사적 작품의 시간은 이야기의 전개를 이끌어내는 장치로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서사적 건축에서 이야기의 전개는 건축공간의 전개방식을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은 시간과 필연적인 연계가 맞힌다(Wang, 2012). 서사적

5) 컨텍스추얼리즘(Contextualism)은 인식론, 언어철학, 윤리학 등 철학 분야뿐만 아니라 문학과 건축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어떠한 인식, 발화, 행위 등을 주어진 상황, 즉 맥락에 의해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이다.

건축의 동선은 가장 직관적으로 시간성을 보여준다. 그 외에도, 동선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추상적이지만, 건축의 구성요소로 시간성을 드러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태양 광에 의한 빛과 그림자는 일정한 시간을 드러내는 요소로써 시간성을 지니고 있다.

(4) 서사적 건축의 설계과정

첫째,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다. 건축의 주제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가의 철학적 개념일 수도 있고, 건축가의 삶과 예술을 대하는 태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주제의 선정은 일반적으로 건축의 장소, 역사, 사회, 도시와 같은 일련의 속성과 관련하여 건축의 기능을 통합하여 정리함으로써 기본적인 설계의 요구를 충족시킨다.

둘째, 추상적인 주제를 구상적인 건축언어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두 가지의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요소로 주제를 표현하는 것이다. 건축가들이 앞서 말한 추상적인 주제들을 다양한 구상적인 요소로 전환하고, 전환된 요소들을 통해 의미가 있는 단편적인 장면이나 공간을 구축하여 추상적인 주제를 표현할 수 있다. 이 요소에는 기둥, 벽, 천장 등 건축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빛, 소리, 향, 촉감, 시간 등 비 건축적 요소도 포함된다. 다음으로 건축가는 구성된 단편적인 장면이나 공간을, 구조를 통해 일정한 관계와 질서를 부여한다. 그 결과로 건축이 한 이야기처럼 조직된다.

서사적 건축설계 과정을 소설의 창작 과정으로 비유하면(Figure 2), 첫 단계는 소설의 주제로 하여 중심 사상을 정한다. 두 번째 단계는 정해진 주제를 여러 장으로 나누어, 이어서 문장과 구체적인 문자로 표현하고, 세 번째 단계는 앞서 만들어진 문장과 문자가 서로의 관계를 갖추어 하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것이며, 이로써 소설이 완성된다. 서사적 건축의 설계 과정에는 건축가에게 상상력, 분석능력, 독특한 시점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건축언어와 조직방식을 선정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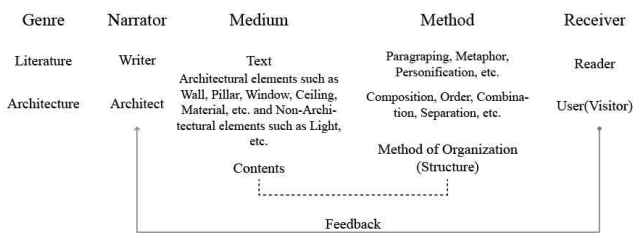


Figure 2. Comparison of Narratives between Literary Works and Architectural Works

3. 리우자쿤의 건축적 서사성에 대한 고찰

중국 강남미학(江南美學)⁶⁾을 건축의 서사 내용으로 삼

6) 강남(江南)은 중국 장강(長江) 하류 남쪽을 의미하며 현재 중국의 지양수성(江蘇省), 제지양성(浙江省), 안후이성(安徽省)의 일부를 의미한다. 이 지역은 다양한 지형과 온난한 기후를 지니고

은 건축가 왕슈, 건축을 극단적인 기하학적 형태로 창작한 루이스 칸, 그리고 도미노 시스템을 이용한 르 코르뷔지에와 달리 리우자쿤의 건축에서는 그의 소설가적 면모를 볼 수 있다. 소설가가 적합한 단어를 선택하여 문장을 구성하듯이 리우자쿤은 의미를 가진 요소를 활용하여 건축을 구성한다. 공간의 질서 측면에도 리우자쿤이 소설에서 활용했던 조직방식을 사용하고자 하였다(Liu, 2002). 그리고 소설이 명확한 중심 사상을 가지고 있듯이 리우자쿤의 건축에도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리우자쿤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그의 독특한 방식으로 건축에 서사성을 부여하였다.

3.1 집단기억(集團記憶)과 향토요소(鄉土要素)의 사용

집단기억과 향토요소에 관한 서사 내용은 리우자쿤 건축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특징이다. 집단기억과 향토요소의 상호 작용을 통해 건축의 서사성은 더욱 뚜렷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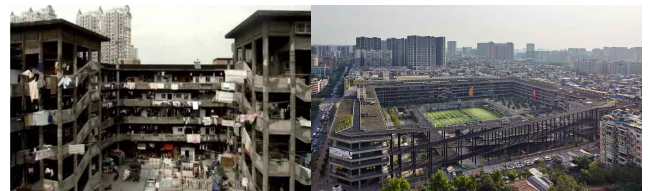


Figure 3. a) Chinese Collective Community : Longchang Apartment, 1933 ; b) Liu Jiakun, West Village, 2010-15



Figure 4. Liu Jiakun, West Village, 2010-15
a) Bamboo Landscape ; b) Skin made by Traditional Craftsmanship. (Source: taken by myself)

리우자쿤은 웨스트 빌리지⁸⁾의 서사 내용에서 “당대건축기법(當代手法)과 역사적 기억(歷史記憶)”의 건축 사상을 계승한 집단기억과 향토요소를 사용하였다. 웨스트 빌리지는 현대 도시의 다양성과 사회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건축의 원형으로 계획경제시대에 만들어진 집단거주대원(集體居住大院)(Figure 3, a⁹⁾)을 차용하였다. 중국에서

있기 때문에 풍경과 산물이 독특하다. 기원전 6세기부터 시작된 원림문화가 있으며, 고대 시인과 화가들의 강남을 대상으로 한 고시와 그림이 많이 남아 있다. 강남미학은 시와 그림에 드러난 강남풍경, 자연을 담은 원림, 강남 민간 예술의 완약(婉約)과 풍격, 독특한 생태 미학 그리고 일상적 아름다움으로 구성된다.

7) 집단기억은 한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겪은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 갖는 공통의 기억을 의미한다.

8) 웨스트 빌리지는 리우자쿤이 2010년부터 계획한 복합커뮤니티 시설이다. 쓰촨성 청두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업무, 문화, 상업, 스포츠 등 복합 기능을 수용하고 있다.

9) 이미지출처: 리우자쿤, The Soul of the Place(地方的靈魂/지방의 영혼) 강연, <https://www.youtube.com/watch?v=w-AK841uBVE>.

이 주거방식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대부분 중국인들의 삶을 담는 방식이었다. 집단거주대원의 기본적인 형태에 여러 가지 향토요소를 결합하여 웨스트 빌리지(Figure 3, b¹⁰)를 구성하였다. 대나무 숲(Figure 4, a)과 차관(茶館)¹¹은 쓰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향토요소로 쓰촨 지역의 모습을 나타내는 대표적 요소이다. 리우자쿤은 집단거주대원 “ㄷ” 형태의 남겨진 중앙에 향토요소인 대나무 숲과 차관을 활용하여 지역적 이야기를 담아내었고 공간의 서사성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향토요소의 활용으로 방문자에게 체험을 통한 지역성에 대한 사고를 불러일으킨다.

웨스트 빌리지에서 리우자쿤은 건축 재료(Figure 4, b)의 선택에 향토요소의 도입을 통하여 지역의 삶을 서사의 내용으로 변화시켰다. 양식화되어가는 건축재료 추세 속에서 리우자쿤은 현지 생산이 가능한 재료를 선택하였고, 건축재료 처리에 있어서도 현지에서 많이 사용되는 전통 기법을 선택하였다. 예를 들면 대나무를 엮어서 만든 거푸집을 통해 콘크리트에 독특한 질감을 부여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전통적 기법을 활용하여 가공된 현대적 재료는 “일상”과 “당대”에 관한 서사내용을 구성해주었다.

수정방박물관의 서사 내용 선택은 웨스트 빌리지와 유사하다. 현대적인 기법과 지역 건축 재료를 결합하여 이미 도시에서 사라진 쓰촨 지역 전통민가를 재현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방문자에게 시간과 지역성 그리고 집단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세세한 서사내용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건축 작품에서 집단기억과 향토요소를 사용하여 건축적 서사를 전개하는 것은 리우자쿤 건축의 공통된 특징이다.

3.2 문학 작품에서 차용한 서사구조

리우자쿤은 건축 설계와 소설 창작은 비슷하다고 말했다. 작가는 소설을 창작할 때 대부분 결말을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 스토리의 전개방향을 정한다. 그는 건축을 설계할 때도 이처럼 먼저 결말을 설정하고 그 결말을 찾아가는 과정을 디자인한다. 찾아가는 과정은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시작과 결말은 비이성적이지만 찾아가는 과정은 이성적이라는 점에서 건축과 소설의 창작 과정은 비슷하다. 어떤 경로를 통과하여 결말에 도착하는 것은 바로 건축 설계를 하는 과정이다(Liu, 2002). 리우자쿤은 소설 창작에서 이성적으로 서사 구조를 컨트롤하는 것처럼 건축에서 동선을 조직하여 건축 작품에서도 문학성을 드러낸다. 건축가는 목적을 가지고 동선을 조직해 공간과 공간 사이에 관계를 부여하고 방문자에게 공간체험을 제공한다. 이렇게 문학작품의 서사 구조를 건축에서 활용한 결과로 리우자쿤의 건축에서는 강한 서사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10) 이미지출처: 자쿤건축(家琨建築), <https://www.jiakun.com>
 11) 3000년의 역사를 지닌 쓰촨성 차 문화의 중심인 차관(茶館)에서 사람들이 차를 즐기는 모습은 길거리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리우자쿤은 많은 그의 작품에서 문학작품의 서사 구조를 사용하였다. 리우자쿤이 1995년에 계획한 개인 예술작업실인 허뒤링공작실(何多苓工作室)에서는 미로와 같은 동선(Figure 5, c)을 도입하였다. 공간의 시작점에서 방문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복잡한 공간 장면(Figure 5, a, b¹²)을 설정함으로써 방문자들의 공간에 대한 의문과 호기심을 끌어낸다. 동선은 답을 찾는 과정에서 유일한 단서이다. 동선을 따라 공간을 탐구하고 어느 지점에서 공간 정체성에 대한 답을 찾게 된다. 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방문자들이 느끼는 강렬한 몰입감은 건축적 서사 완성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리우자쿤의 다른 작품인 상하이상동불상예술관(上海相東佛像藝術館)(Figure 6, a¹³)은 시끌벅적한 도심에서 “내심총림(內心叢林)¹⁴”을 만들기 위해 폐쇄된 거대한 공간에 동선(Figure 6, b)을 점점 상승시키는 방식으로 계획하였다. 이러한 상하이동불상미술관의 공간 서사구조는 소설과 같은 허뒤링공작실의 그것과 비교하면 짧은 시에 더 가깝다. 직접적으로 답을 찾는 과정은 없지만 전사된 불상의 이야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간결하고 응축된 구조이다.

이처럼 리우자쿤 건축에서 동선을 배치하는 방식은 각각 다르다. 하지만 서사성으로 인해 기승전결이 있으며, 방문자를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 서사내용 속으로 유도함으로써 더욱 강렬한 서사성을 건축에 부여한다.



Figure 5. Liu Jiakun, He Duoling Studio, 1995-97
 a) Entrance ; b) Interior Space ;
 c) Diagram of Circulation (Source: made by mysel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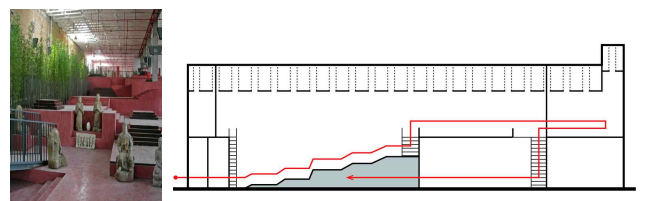


Figure 6. Liu Jiakun, Shanghai Xiang-dong Buddha Statue Museum, 2007-08 : a) Interior Space: Jungle of Inner-self ; b) Diagram of Circulation (Source: made by myself)

3.3 주제로 강하게 수렴하는 건축 구성요소들

소설과 같은 문학작품에는 항상 명확한 주제가 존재한다. 이야기의 전개 과정에서 모든 사건은 주제를 중심으로

12) 이미지출처: <http://www.ikuku.cn/project/heduoling-gongzuoshi-liu-jiakun>
 13) 이미지출처: Liu, J. (2012). “Jungle of Inner-self”: Design of Shanghai Xiang-dong Buddha Museum, *New Architecture*, 2012(2), 57.
 14) 바쁜 일상에서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현실적 삶보다 정신적인 부분에서 휴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의미한다.

로 발생한다. 혼란스럽고 불필요한 내용들을 제거할수록 서사하는 과정이 더 명확해져 주제와 각각의 의도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다. 이렇듯 주제로의 강한 집중은 스토리 서사에 도움을 주고 서사성을 더욱 강화시킨다. 리우자쿤은 작가로서 이것을 알고 있었으며 건축가로서 주제의 강한 수렴을 건축에서도 시도하였다.

리우자쿤은 후후이산기념관(胡慧珊紀念館)¹⁵⁾(Figure 716), a)에서 예외없이 인문적인 주제를 선택하여 그것을 중심으로 건축 계획을 하였다. 기념관은 2008년 쓰촨 대지진 당시에 설치한 임시 텐트를 원형으로 구축되었고 재생벽돌¹⁷⁾(Figure 8, a18))이 주제로 사용되었다. 외피(Figure 8, b)에도 쓰촨 농촌지역에서 많이 활용되는 기법이 사용되었다. 내부(Figure 7, b)의 벽은 소녀를 대표하는 핑크색으로 칠해졌다. 전시품들도 “평범”과 “일상”에 관련된 것으로 후후이산의 삶의 흔적이 담겨 있는 가방, 노트, 사진 등으로 구성되었다. 리우자쿤은 건축의 실외에서 실내로 그리고 건축의 전체에서 세부까지 “평범”과 “일상” 그리고 “지진”을 주제로 한 이런 요소들이 스며든 건축 재료와 기법을 선택하였다.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한 방식으로 지진에서 목숨을 잃은 많은 평범한 생명에 대해 건축의 틀로 기념하고 존중을 나타내었다. 많은 내용이 담겼지만 그 내용의 중심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주제로 강하게 수렴하는 구성요소들을 통해 방문자들이 느끼는 서사성은 더 강렬해진다.

리우자쿤의 다른 건축 작품에서도 사용된 여러 요소들은 한 가지 주제를 도출하기 위해 존재한다. 목적성을 가진 요소의 사용으로 건축적 서사성은 더욱 강해진다.



Figure 7. Liu Jiakun, Hu Huishan Memorial Hall, 2008-09
a) Entrance ; b) Interior Space and Exhibition



Figure 8. a) Liu Jiakun, Recycled Brick Project, 2008 ; b) Liu Jiakun, Hu Huishan Memorial Hall, Skin of Wall (Source: taken by myself)

15) 후후이산기념관(胡慧珊紀念館)은 2008년 쓰촨 대지진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15살 소녀 후후이산을 위한 기념관이다. 쓰촨 건천박물관(四川建川博物館)단지 내의 작은 숲에 위치하고 있다.

16) 이미지출처: 자쿤건축(家琨建築), <https://www.jiakun.com>

17) 쓰촨 대지진으로 인해 물어진 건물의 폐허에서 남겨진 벽돌들을 분쇄하여, 골재로 만들었고 재활용할 수 있는 벽돌을 제작하였다. 실제 건축 시공에서 재생벽돌을 사용하였다.

18) 이미지출처: 자쿤건축(家琨建築), <https://www.jiakun.com>

4. 녹야원석각박물관에서 나타난 서사성의 발현

녹야원석각박물관은 리우자쿤이 청두시 건축설계 연구원을 그만두고 개인 건축사무소를 창립하여 설계한 첫 건축 작품이다. 리우자쿤이 소설가에서 건축가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그의 건축 작품에 드러난 특징도 변화되고 있다. 앞서 리우자쿤의 건축 작품을 전체적으로 다루어 그의 건축에서 나타난 서사성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그의 건축적 서사성의 중심은 서사적 구조에서 서사적 내용의 표현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녹야원석각박물관은 그의 전환 시기에 속한 작품으로 서사성의 두 가지 특징이 다 드러났다. 그러므로 녹야원석각박물관은 리우자쿤 건축의 서사성 발현에 대한 연구에 가장 적합한 건축 사례가 될 수 있다.

4.1 건축적 서사 주제의 선정

리우자쿤이 2001년에 계획한 녹야원석각(鹿野苑石刻)박물관(Figure 919)은 개인 수집박물관이며 한(漢)나라 때부터 현재까지 오래된 역사를 간직한 불교 석상들을 소장하고 있다. 쓰촨성 청두시 피현(郫县)에 위치한 대지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모래톱이며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러한 배경의 프로젝트에서 리우자쿤은 인공적, 신화적 채색의 반일상의 두 가지 주제를 선택하였다.



Figure 9. Liu Jiakun, Luyeyuan Stone Carving Museum, 2001-02

(1) 인공적(人工的)

리우자쿤은 『나는 서중국에서 건축을 하고 있다(我在西部做建築)』에서 건축이 먼저 해야 할 역할은 사람과 자연을 분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갖고 싶은 것을 자연에서 갖고 나와야 하는데 어떻게 갖고 나오느냐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며 제일 감동적인 부분이다(Liu, 2009).

녹야원석각박물관에서 리우자쿤은 자연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인공적인 방법을 택하였다. 이 방법은 불상을 창작하는 방식과도 비슷하다. 건축은 인류역사와 함께 존재해왔으며 자연에서 시작된 원시 건축은 인류의 지적 행위를 통해 계속 발전하여 사람에게 안락함과 편리함을 주었다. 자연에 있는 돌에 인공적 기

19) 이미지출처: 자쿤건축(家琨建築), <https://www.jiakun.com>

법을 통해 의미를 부여하면 불상이 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자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지만 인공적 행동을 통해 자연에서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녹야원석각박물관에서도 리우자쿤은 이러한 인공의 가미를 선택하여 자연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진 건물을 만들고자 하였다.

(2) 신화색채(神話色彩)속의 반일상(反日常)

녹야원석각박물관의 전시품은 본질적으로 돌이지만, 의미의 차원에 그 돌의 정체는 불교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돌에 종교의 신화 이야기를 담은 불상들이다. 건축도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콘크리트나 철근 등으로 만든 물체이지만 인간의 행위를 담음으로써 건축의 의미가 생긴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불교 석상과 건축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공간의 의미가 중요한 만큼 리우자쿤이 불교 석상의 정체인 신화 이야기를 중요시한다. 그러므로 건축은 불교 석상을 간직하는 장소로서 그의 정체성인 종교적인 신화색채를 드러내야 한다.

또한 그는 현실적인 세계의 반대편에 종교가 주장하는 초인간적 세계가 있어 사람에게 정신적인 위안을 준다고 생각하였다. 리우자쿤은 바쁜 일상 속의 방문자들에게 현실적인 세계에서 잠시 벗어나게 하고 위안이 될 수 있는 정신적인 세계에 집중하자는 의도로 “반일상”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신화색채와 반일상이 두 가지 주제를 통해 전체적 공간 분위기가 구성된다.

4.2 건축적 서사 내용의 표현

(1) 전통적 기법과 지역적 요소와의 결합

건축을 구성하는 재료는 긴 생명력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건축가는 이러한 재료로 건축을 구성하며 건축의 최종 속성을 정한다.²⁰⁾ 안도다다오와 쿠마켄고는 건축과 인테리어에 노출콘크리트와 목재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건축가의 인지도를 높이고 아이덴티티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재료를 통해 건축적 서사성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많은 건축 재료의 규격화와 재료 선택 폭의 제한으로 인해 건축 재료로 건축적 서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리우자쿤은 중국 현대건축에서 끊임없이 건축 재료와 그 표현 방법에 대해 실험과 연구를 해왔다. 중국 전통기법과 현대적 건축 재료를 결합하여 재생 벽돌, 대나무 무늬 콘크리트 같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건축 재료를 만들어 내었고 이들 재료를 통해 건축의 서사성을 드러냈다.

리우자쿤 건축 재료에 대한 사용에서 “저기책략(低技策略)²¹⁾”의 사상도 확인할 수 있다. 녹야원석각박물관의

시공에 경제력과 기술력, 건축과 예술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현지 농민공(農民工)들을 이용했다. 농민공들은 현대적 건축 시공 기술력은 낮지만 오랫동안 쌓아온 지역의 전통적 기법을 통해 건축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쓰촨 지역은 강우량이 커서 식물의 성장환경이 매우 우수하다. 다른 지역에서 긴 생장주기를 필요로 하는 대나무도 쓰촨 지역에서는 5년이면 다 자라는데 이러한 환경 덕분에 대나무나 여타 목재의 활용도가 높다. 콘트리트의 거푸집으로 리우자쿤은 강철을 쓰지 않고 쓰촨 지역의 주요 건축 재료인 나무와 대나무를 택하였다.

건축 외벽에 목판 거푸집을 사용하여 지역적 특성을 드러낸 나무 문양을 외벽(Figure 10, a)에 표현하였다. 그리고 죽교모판(竹膠模版)²²⁾은 죽편(竹編)²³⁾의 전통적 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거푸집을 사용한 것으로 건축의 콘크리트 천장(Figure 10, b)에 죽편의 문양이 그대로 남아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두 가지 기법은 전통성과 지역성을 계승하여 콘크리트의 강건한 모습과 대비되는 유연한 모습이 표현되도록 의도한 것이다.



Figure 10. Liu Jiakun, Luyeyuan Stone Carving Museum, Skin made by Traditional Craftsmanship, 2001-02 : a) Skin of Wall ; b) Ceiling. (Source: taken by myself)

위와 같이 리우자쿤은 현대 건축 재료에 규격화와 획일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저기책략을 개발하여 전통 기법과 지역적 요소를 결합한 건축 재료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람의 흔적이 남겨진 재료를 통해 “인공적”에 대한 건축적 서사 내용을 만들어냈다.

(2) 신화색채를 드러내는 채광 방식

공간/건축적 서사는 서사 내용과 서사 매개의 선택, 그리고 서사 내용을 받는 사람을 통해 완성된다. 공간/건축적 서사를 완성하는 과정에는 두 가지 필수적인 조건이 있다. 첫째, 서사 매개는 건축가의 의도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둘째, 전달된 내용이 공간/건축 사용자에게 공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매개의 대표적인 것은 빛이다. 빛은 건축가의 의도를 전달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방문자에게 공감을 불러일으

비용과 기술력이 낮은 방법으로 수준이 있는 질적인 예술을 완성하는 것이다. 경제력과 기술력, 건축과 예술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은 역사는 깊지만 경제적 역량이 낮은 나라들의 건축책략이다.

22) 대나무를 소재로 가공하여 만든 건축 콘크리트 거푸집을 의미한다.

23) 중국 전통 대나무 수공예 기법을 의미한다.

20) 쿠마켄고가 2018년 상하이에서 열린 <Kengo Kuma: a LAB for materials>전시의 강연 https://www.sohu.com/a/252972049_611093

21) 리우자쿤은 1997년에 『서사언어(敘事話語)와 저기책략(低技策略)』에서 저기책략을 정의하였다. 현실에 직면하여 기술적 측면에서 단순성을 선택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저렴함과 지속가능성을 중요시하고, 오래된 문명을 탐구하여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피하고, 설득력이 있는 설계 철학과 지혜를 통해 저렴한

켜 주고 빛 그 자체로도 서사성을 가진다.

박물관의 서사성은 전시품 정체성의 규정에 달려 있다. 녹야원석각박물관의 전시품은 강한 신화색채를 가지고 있으며 건축도 자연환경과 공명하고 있다. 신성(神性)을 가진 불상들과 건축을 품고 있는 자연환경은 박물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구성한다. 리우자쿤은 녹야원석각박물관에서 빛을 이용하여 신화 이야기를 전달하고 성스러운 분위기를 구성하였다.

녹야원석각박물관에서 리우자쿤은 외부 공간부터 분위기 표현을 위해 빛을 사용하였다. 빛의 강약에 따라 주변 환경 분위기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빛을 통제하는 장치로는 나무와 식재가 사용되었다. 나무의 수종, 수량 및 크기를 정해 식재하여 주차장에서 박물관의 입구까지의 여정에서 외부공간은 밝게 시작하여 점차 어두워지도록 연출하였다. 이러한 빛의 조절을 통해 건축가는 현실세계에서 자연과 신화세계로 방문자들을 점진으로 유도한다. 공간의 명암(明暗)변화를 통한 고요하고 신비로운 환경의 구성은 불상의 강한 신화색채와 더욱 어울린다.

내부에 인공조명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우자쿤은 내부 공간과 불상을 밝히는데 자연채광을 적극 이용한다. 외부 공간 명암변화에 이어 내부 공간에서도 밝음-어두움-밝음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공간변화를 이용하여 공간과 공간의 연속성을 강화함으로써 전체적인 서사과정은 더욱 선명해진다. 리우자쿤이 녹야원석각박물관에서 건축과 불상의 신화색채에 대한 서사를 완성하기 위해 활용한 자연 채광 방식은 크게 세 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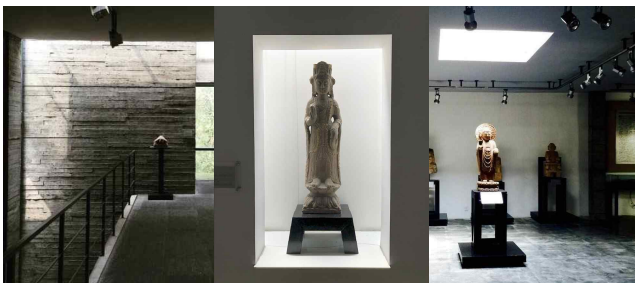


Figure 11. Liu Jiakun, Luyeyuan Stone Carving Museum, Natural Lighting Method, 2001-02 : a) Light coming through the Gap ; b) Reflected Light ; c) Skylight. (Source: taken by myself)

첫째, 공간의 틈새로 들어오는 자연 채광 방식(Figure 11, a)이다. 이러한 자연광은 주로 공간과 공간 사이에 설치된 세로로 긴 창을 통해 실내로 들어온다. 건축가는 방문자들로 하여금 길쭉한 창을 통해 바깥의 변화를 엿볼 수 있게 하여 자연과 시간에 대한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틈새로 떨어져 들어오는 빛과 실내 벽면의 각도가 작기 때문에 벽에 있는 나무판 자국이 도드라져 더욱 드라마틱한 효과를 연출한다. 방문자들은 빛의 이동과 변화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고 불상을 시간의 차원에서 감상할 수 있다.

둘째, 역광 효과를 이용한 자연 채광 방식(Figure 11, b)

이다. 전시된 불상 뒤에 빛이 들어오는 장치를 설치하여 반사를 통해 불상들을 비춘다. 이러한 채광방식은 빛이 들어오는 곳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상들이 더 강조되어 보이며 명과 암의 명확한 경계가 없어 불상들이 더욱 자연스럽게 보인다. 세심하게 조절된 빛으로 불상들을 은은하게 비추게 하여 더 신비롭고 성스러운 느낌을 연출한다. 반사된 빛을 통해 전시된 불상과 공간에 대한 서사성은 한층 더 강화된다.

셋째, 천창을 통해 내려온 자연 채광 방식(Figure 11, c)이다. 이러한 채광방식은 항상 공간의 중앙이나 거대한 불상과 같은 중요 전시물 위에 존재한다. 위의 두 가지 채광방식보다 더 직접적이고 강한 빛은 마치 전시조명과 같다. 이는 실내를 밝혀 주는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며, 빛이 불상을 직접 비추어 불상에 성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준다. 이러한 강렬한 명암대비와 성스러운 분위기는 방문자에게 종교에 대한 감동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넓고 높은 공간과 더불어 명상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준다.

리우자쿤은 녹야원석각박물관에서 의도적 여러 방식의 자연채광을 서사 매개로 사용하여 불상에서 나온 신화색채를 건축 구성언어로 전환시켜 방문자들에게 서사내용을 전달한다. 방문자들은 공간체험과정을 통해 건축가의 의도에 공감을 얻을 수 있다. 녹야원석각박물관의 빛은 건축가가 의도한 신화색채의 내용을 방문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서사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4.3 건축적 서사 구조의 도입

(1) 유주로경(遊走路徑)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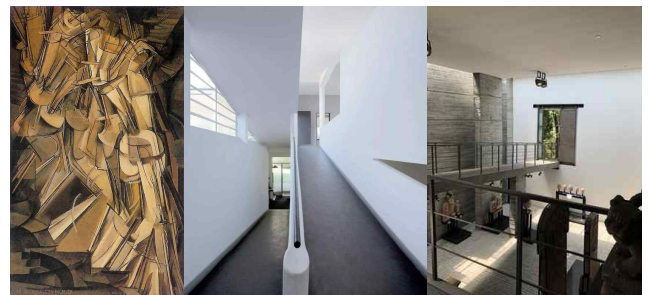


Figure 12. a) Le Corbusier, The Ramp of Villa Savoye, 1928-30 ; b) Marcel Duchamp, Nude Descending a Staircase No. 2, 1912 ; c) Liu Jiakun, The Ramp of Luyeyuan Stone Carving Museum, 2001-02 (Source: taken by myself)

르 코르뷔지에는 “건축은 통과’ 할 수 있어야 하고 건축에서 ‘이동’ 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했으며 빌라 사보아(Figure 12, a²⁵⁾)에서 램프를 이용하여 “건축적 산책” 을 보여주었다. 램프는 건축 공간에서 “통과” 와 “이동” 을 하는 장치로 건축공간의 수직적 관계를 강화시켰으며 공간에 방향성을 부여해주었다. 그리고 완만한 경사를 갖춘 램프는 이동과정에서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

24) 이동하는 과정에서 흥미(興味)와 체험을 강조하는 동선을 의미한다.

25) 이미지출처: <http://www.archiposition.com/items/20180525102927>

고 다양한 시각적 체험을 제공하여 건축적 산책을 완성함으로써 건축에 서사성을 부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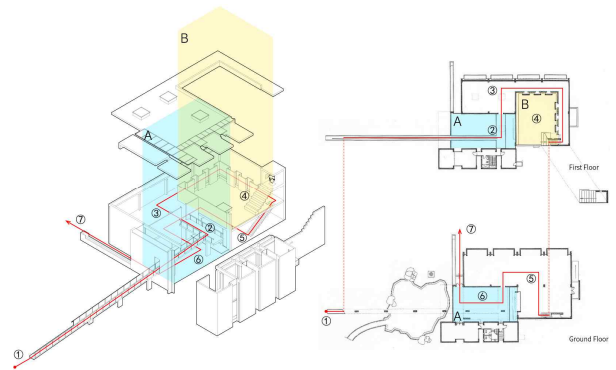
리우자쿤도 이와 비슷한 동선을 사용하였지만 이동하는 과정에서 흥미를 얻을 수 있는 동선을 녹야원석각박물관 입구에 사용하였다. 이것은 리우자쿤이 유주로경이라고 불렀다. 녹야원석각박물관 입구에 램프를 도입하여 평소에 체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시각적 체험을 제공해주었다. 마르셀 뒤샹은 1912년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Figure 12, b26)라는 유화에서 이동에 의한 시각적 변화를 설명하였다. 이 정적인 유화에서 누드 주인공은 시간과 위치의 변화에 따라 계단을 내려오는 듯 한 역동적인 모습을 관찰자에게 보여준다. 이와 반대로, 정적인 전시품들은 이동하는 관찰자의 위치와 시점 변화에 따라 역동적인 모습으로 변화된다. 녹야원석각박물관 램프(Figure 12, c)에서도 이와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램프는 점차 높아지는 방식으로 방문자에게 불상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었다. 방문자들은 램프 위를 이동함에 따라 불상에 대한 다양한 시각적 체험할 수 있으며 불상의 동적인 모습을 느낄 수 있다.

입구에 설치된 램프는 외부 산책로의 일부로 느껴져 외부에 있는 방문자들을 자연스럽게 건축 2층 내부로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램프가 완만한 경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문자들은 상승하는 느낌을 체험한다. 이러한 상승의 체험을 통해 방문자들은 심리적으로 신화의 이야기와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낀다. 건축가는 이러한 반일상적 상승 체험을 통해 방문자들에게 불상과 건축의 정체성을 암시하고 유주로경의 시작을 만들었다. 램프의 끝은 내부 유주로경으로 이어진다. 내부 유주로경은 2층에서 시작하여 자연스럽게 1층으로 내려가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일반적인 건물들의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동선을 제공하는 것과는 다르게, 중복되는 동선을 방지하여 단절 없이 공간을 전개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주로경의 방식은 하나의 이야기를 감상하듯 더욱 자연스러운 건축적 사서를 제공해준다.

(2) 문학적 서사구조 사용

문학적 서사 구조란 스토리와 플롯을 서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일정한 시간 순서를 통해 단편적 스토리들을 조직하는 방식으로 통일성과 완전성을 가진 서사를 완성한다. 문학 작품의 서사구조를 선형서사(線型敘事)와 비선형서사(非線型敘事)로 나눌 때 선적인 서사구조를 가진 역순행(逆順行)적 구성²⁷⁾과 액자(額子)식 구성²⁸⁾은 선형서사에 해당된다.

리우자쿤은 녹야원석각박물관에서 역순행적 서사구조와 액자식 서사구조를 연결도구로 활용하여 건축적 서사내용을 완성함으로써 건축에 강한 서사성을 드러낸다.



① → ② → ③ → ④
(시작) → (발전)



⑤ → ⑥ → ⑦
(고조) → (결말)

Figure 13. Liu Jiakun, The Ramp of Luyeyuan Stone Carving Museum, 2001-02 : a) (Above) Diagram of Circulation (Source: made by myself) ; b) (Bottom) Space Scenario and 4 Steps (Source: taken by myself)

파란색으로 표시된 공간(Figure 13, a, A)에서 문학 작품에서 사용하는 역순행적 구성과 비슷한 건축적 서사구조가 나타났다. 이 공간은 건축적 서사의 시작 단계(Figure 13, b)에 해당하며 고조 단계에도 해당한다. 역순행적 구성을 갖춘 문학 작품에서 시작에 먼저 스토리의 결과를 보여주듯 건축가는 공간이 시작하는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건축적 서사 순서상 나중에 나타나야 할 공간을 방문자에게 먼저 보여준다. 그 의도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 방문자에게 공간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며 더욱 강렬한 공간적 몰입감을 느끼게 한다. 방문자는 건축 공간에 대한 몰입감 때문에 공간 체험에 집중할 수 있으며 건축적 서사구조 속에서 기승전결을 더욱 뚜렷하게 느낀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공간(Figure 13, a, B)에는 문학 작품에서 사용하는 액자식 구성과 비슷한 건축적 서사구조가 나타난다. 이 단계는 건축적 서사의 발전 단계에 해당하며 건축적 서사내용을 집중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전체의 선(線)형식의 동선에 추가적으로 다른 동선을 덧붙였다. 이 동선을 따라 만난 공간(Figure 13, b)은 다른 공간과 달리 야외에 있으며 다른 분위기를

26) 이미지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74907&cid=46720&categoryId=46868>

27) 시간의 흐름이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과 달리 현재에서 과거로 거슬러 가거나 현재와 과거를 오가는 구성 방식을 의미한다.

28) 소설, 희곡 따위에서, 이야기 속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야기가 들어 있는 구성을 의미한다.

가지고 있다. 주인공의 성격의 완전성을 위해 생긴 액자식 구성처럼 다른 공간을 추가하여 건축적 서사 내용에 대한 정체성을 더 보완하고 완성도가 높은 건축적 서사를 구성한다.

5. 결 론

이 연구는 건축과 서사에 대한 이론적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건축에서 서사성을 중요 주제로 삼고 있다. 건축가 리우자쿤의 건축 작품들, 특히 녹야원석각박물관의 건축적 서사와 그 방법을 분석하였다.

먼저 건축과 서사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에서 서사학의 유래와 서사학이 건축에 등장한 배경, 서사와 건축의 관계에 대해 문헌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연구 대상인 건축가 리우자쿤의 건축 작품을 통해 건축적 서사성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현지답사를 통한 자료와 관찰을 바탕으로 리우자쿤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서사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녹야원석각박물관은 배치부터 건축의 디테일에까지 서사성이 스며들어 있다. 분석은 건축적 서사 주제, 건축적 서사 내용 그리고 건축적 서사 구조 세 가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리우자쿤은 그의 건축적 가치관과 녹야원석각박물관에 전시된 불상의 정체성을 결합하여 건축과 불상에 어울리는 서사 주제를 정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건축을 구축하였다. 그는 건축적 서사성을 서사 내용과 서사 구조를 통해 만들어 내었다. 녹야원석각박물관은 향토요소와 빛을 활용하여 건축의 서사 주제를 중심으로 건축적 서사 내용의 서사성을 강화시킨다. 램프를 사용하여 건축적 산책로를 만들고 문학 작품에서 사용하는 역순행적 구성과 액자식 구성을 결합하여 서사성을 강렬하게 드러내는 서사 구조를 구성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한계로는 연구대상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다른 건축가의 건축 작품에서 나타난 서사성과 비교 분석이 부족한 점 있다. 이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사성은 건축의 표현에 관련해 더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후속보완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1. Feng, X. (2017). A study on the Light and Shadow of Narrative in the Architectural Space, *Central Academy of Fine Arts*.
2. Jeon, B., John, H., & Choon, C. (2019). SNU-MOK CHON Lectures 01 Liu Jiakun, *Gong gan seo ga*.
3. Jin, Y. (2017).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Nativity in the Architectural Works by Liu JIA KUN, *Seoul National University*.
4. Kim, H., & Kim, Y. (1994). Architectural Space Museum: for the combination of rationality and narrative, *Baleon*.

5. Liu, J. (2002). Now and Here, *China Architecture Publishing*.
6. Liu, J. (1997). Narrative Discourse and Low-Tech Strategies, *Architect*, 1997(10), 46-50.
7. Liu, J. (2009). I do Architecture in the West, *Today*, 2009(85), 65-92.
8. Liu, J. (2012). "Jungle of Inner-self": Design of Shanghai Xiang-dong Buddha Museum, *New Architecture*, 2012(2), 54-59.
9. Lu, S. (2012). Study on Architectural Narratology, *Tongji University Journal Social Science Section*, 23(5), 25-31.
10. Liang, T., & Jiao, X. (2019). Research on Architectural Narrative Based on Film Space Narrative Means, *Urbanism and Architecture*, 323(16), 117-119.
11. Lu, L., & Ling, S. (2013). As a Space Narrative Method- Here is a Brief Analysis on the Ramp Contribution to Architecture Continuous Space Creation, *Chinese & Overseas Architecture*, 2013(3), 55-57.
12. Song, K., & Zou, Y. (2000). The Overall Order - Structuralist City and Architecture, *World Architecture*, 2000(07), 66-69.
13. Wang, R. (2012). Thinking about the time dimension of Architecture- Interpretation of Liu Jiakun's Creative Time in the Perspective of Narrative, *Sichuan Architecture*, 32(2), 48-50.
14. Wang, Z. (2013). The Narrative research of Architectural Space, *Kunmi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15. Xiang, K. (2005). Narrative Design and Narrative Architecture, *Journal of Chongqing University*, 2005(01), 21-24.
16. Yin, H. (2015). Two Decades of Liu Jiakun's Architectural Practice, *Time+Architecture*, 80-35.
17. Yang, Y. (2007). On the Narrative Design of Space, *Hundred Schools in Art*, 99(8), 90-92.

(Received Apr. 19 2020 Revised May 15 2020 Accepted Jun. 29 2020)